

# 지역통계의 현황과 개발

2005년 11월

작성자 : 통계청 통계개발팀 정 동명

지역통계과 최 봉호

Tel : (042) 481-2571, 2078

e-mail : jedomy@nso.go.kr, bongho.choi@nso.go.kr

## 主 要 內 容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음
  - 지역통계의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낮은 통계인식과 취약한 조직 및 인력, 전문통계인력 및 지역통계의 양적인 부족, 그리고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성 저조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3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통계조직 및 인력확충, 법·제도의 정비, 교육·인사시스템구축, 지역통계의 개선·개발, 통계작성기법연구, 지역통계품질제고,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지역통계의 공동 활용
- 또한 2005년 통계청에서 추진중인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전주시의 통계개발 추진현황을 소개하였음
  - 전주시는 3종 단기경제지표(고용통계,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작성할 예정

# 지역통계의 현황과 개발

## I. 서론

일반적으로 지역통계의 정의는 연구목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를 일정한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된 소지역별 또는 몇 개의 소지역이 합쳐진 공간단위별로 작성되는 통계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통계는 지역의 경제·사회현상과 실태를 잘 반영해 주는 기본 지표로서 지역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지역 실정이 잘 반영된 지역통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통계를 근거로 수립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역행정문화를 실현할 수가 있다.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통계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부처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지역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지역통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직접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 시정운영 및 정책목표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서베이」를 2003년에 계획하여 지난 4월에 「2004 서울서베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직접 통계를 작성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수집되는 행정보고자료나 중앙정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통계개발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지역통계의 작성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필요한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계개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II. 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 1. 지역통계의 현황

#### 가. 통계작성현황

우리나라의 정부승인통계는 2005년 8월 1일 현재 총 490종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 중 지역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등에서 233종을 작성하고 있다. 작성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17종, 지방자치단체가 96종, 민간지정기관이 20종의 지역통계를 각각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통계는 공표범위가 지역단위(시/도, 시/군/구, 읍/면/동)인 통계를 말한다.

<표 1> 공표범위별 통계현황

(’05. 8. 1. 현재) (단위 : 종)

기관	작성통계	공표범위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계	490	254	125	80	28	3
정부기관	347	131	106	78	28	3
· 중앙행정기관	251	131	94	16	7	3
· 지방자체단체	96		13	62	21	
민간지정기관	143	123	18	2		

(자료 : 통계청)

작성방법별로 살펴보면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대부분이며 분석기법 등에 의한 가공통계는 총 233종 중 34종으로 14.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농림, 인구, 교육 등 기초분야 위주로 지역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작성방법별 통계현황

(’05. 8. 1. 현재)

(단위 : 종)

공표범위	작성통계	작성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490	251	181	58
전국	254	151	79	24
지역	233	99	100	34
기타	3	1	2	

(자료 : 통계청)

### 나. 통계조직 및 인력현황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과(課)단위에서 계(係)단위 수준의 조직으로 축소되거나 재편되고 있으며, 그나마 서울특별시가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2개 팀(통계정보팀, 통계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이 다소 안정적인 편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통계조직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다른 부서에서 통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으로 통계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통계조직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표 3> 기관별 통계인력 현황

(’04. 7. 현재)

(단위 : 명, %)

기관	2002년		2004년		증감	
	인원(A)	구성비	인원(B)	구성비	(B-A)	증감률
계	3,792	100.0	4,135	100.0	343	9.0
중앙행정기관	2,822	74.4	3,113	75.3	291	10.3
지방자체단체	549	14.5	516	12.5	-33	-6.0
· 시/도 본청	90	2.4	80	1.9	-10	-11.1
· 시/군/구	448	11.8	401	9.7	-47	-10.5
· 시/도 교육청	11	0.3	35	0.8	24	218.2
민간지정기관	421	11.1	506	12.2	85	20.2

(자료 : 통계청)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표 3>에 나타난바와 같이 통계조직의 축소와 아울러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통계인력은 총 4,135명으로 2002년의 3,792명에 비해 343명(9.0%)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같은 기간에 549명에서 516명으로 33명(6.0%)이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광역시/도 본청의 통계인력은 10명(11.1%)이 감소하였으며, 시/군/구의 통계인력은 47명(10.5%)이 감소하였다.

#### 다. 통계업무현황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임통계업무와 시/도 공통작성통계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임통계업무는 주로 통계청에서 위임된 총조사(인구 및 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산업총조사 등)와 관련된 업무이며, 각 시/도가 공통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시/도 교육청이 작성하는 교육통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 시/도기본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4종류의 64종으로 지자체가 작성하는 통계(96종)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지자체의 통계인력현황

(’04. 7. 현재) (단위 : 명)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6	6	2	2	1	3	2	1	4	2	1	1	1	1	2	2	1
공통	6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시/도	13	3	1	1		2	1			1	1	1					1
시/군/구	14	1	1	1	1	1	1	1	2	1					2	2	
읍/면/동	5	2							2				1				

(자료 : 통계청)

## 2. 지역통계의 문제점

앞 절에서 살펴본 지역통계의 현황을 기초로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지자체의 낮은 통계인식과 취약한 조직 및 인력, 전문통계인력 및 지역통계의

양적인 부족, 그리고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성 저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통계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한 편으로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통계업무를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계업무를 단순히 중앙부처의 위임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통계업무의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직원들이 통계부서를 한직으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통계작성에 대한 투자는 낮은 편으로서 통계를 특성상 “꼭 필요한 것” 이라기보다는 “하면 좋은 것”이라는 선택적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지역통계작성을 위한 인력·예산 등의 투자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나. 지자체의 통계조직 및 인력이 취약

지방의 통계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통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등에서 지역별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고유 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는 계(係) 수준의 통계조직이 있다. 시/군/구에도 대부분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통계계가 있으나 읍/면/동에는 통계기능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업무 담당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으로 각 시/도의 본청에는 10명 미만의 통계담당직원이 통계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한 개 시/군/구당 평균 1.7명의 통계담당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지자체의 통계인력현황

(’04. 7. 현재) (단위 : 명)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81	53	35	24	16	16	10	8	71	33	29	30	27	31	42	46	10
시/도	80	7	6	5	6	5	3	4	9	6	3	4	6	4	5	5	2
시/군/구	401	46	29	19	10	11	7	4	62	27	26	26	21	27	37	41	8

(자료 : 통계청)

#### 다. 지자체의 전문통계인력이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전문통계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통계담당직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전문성의 축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통계업무경력별 통계인력현황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바와 같이 근속년수가 5년 이상으로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이 62.4%로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불과 6.2%로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지자체 통계담당직원의 53.9%가 통계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직원들의 보직이동이 심해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표 6> 통계업무경력별 통계인력현황

(’04. 7. 현재) (단위 : 명, %)

	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135	770	18.6	1,289	31.2	2,076	50.2
중앙행정기관	3,113	343	11.0	829	26.6	1,941	62.4
지방자치단체	516	278	53.9	206	39.9	32	6.2
민간지정기관	506	149	29.4	254	50.2	103	20.4

(자료 : 통계청)

한편, 통계담당직원의 통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 전문적인 통계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전체 지자체 담당직원의 12.2%인 63명이며, 6개월 이상 중점적으로 통계교육을 받은 직원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전문통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단 1명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7> 통계교육이수 통계인력현황

(’04. 7. 현재) (단위 : 명, %)

	계	국내 교육			국외 교육		
		교육없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교육없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계	4,135	1,696	2,398	41	3,980	120	35
중앙행정기관	3,113	875	2,207	31	2,982	96	35
지방자치단체	516	453	61	2	515	1	-
민간지정기관	506	368	130	8	483	23	-

(자료 : 통계청)

## 라. 지역통계가 양적으로 부족

지역통계의 수가 양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는 대부분의 조사통계가 전국(또는 시/도)단위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일부 전수조사자료에 불과하며,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재정의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배분할 경우에도 지역간의 불균형 실태를 보여주는 경제·사회지표가 부족하여 인구수 등과 같은 단순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지역통계 중 가공·분석통계의 비중도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지자체 통계업무가 주로 중앙부처의 위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가 직접 통계를 작성하여 가공·분석하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 마. 지역통계의 정확성과 활용성이 저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정확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이는 일선 지자체 행정직원들의 통계인식부족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이 소홀하거나 조사의 기획과 자료수집, 결과분석 등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집·작성되는 통계들도 그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계조사나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많은 지역관련 통계가 수집·작성되고 있으나, 낮은 정확성과 보안 등 자료의 질적인 문제로 인해 공표되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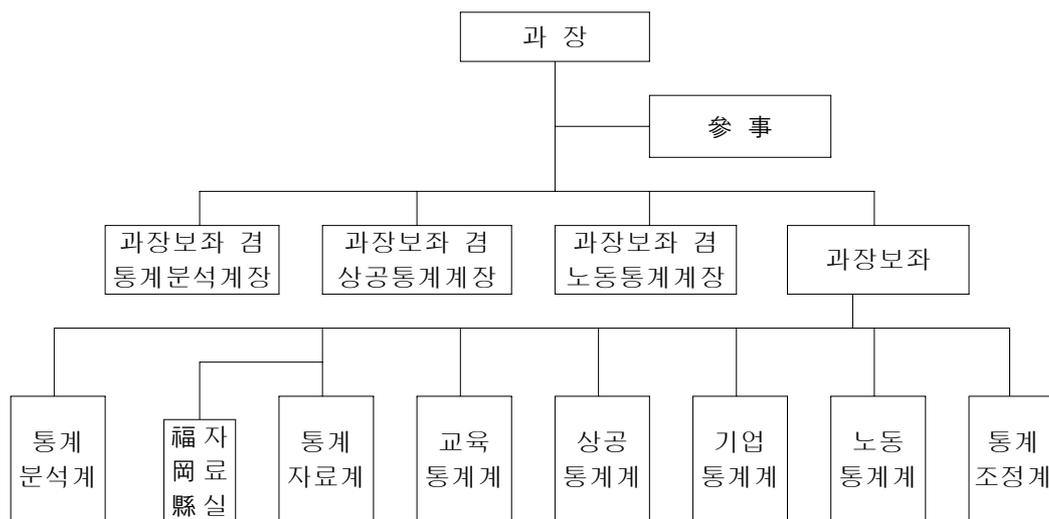
한편, 현재 작성되는 지역통계는 STAT-KOREA(통계바다)와 KOSIS에서 관리·운영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통계 DB가 지역별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자세한 지역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간행물에 의존해야 하는 등 일반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실정이다.

## 3. 외국사례

### 가. 일본

일본 지자체의 통계기능은 현(縣)별로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후쿠오카현

사례를 통해 일본의 지자체 통계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후쿠오카현(福岡縣)廳은 지사(知事)밑에 총무부, 기획진흥부, 민생부, 보건환경부, 상공부, 농정부, 수산임무부, 노동부, 토목부, 건축도시부 등 10개 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계업무는 기획진흥부내의 조사통계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사통계과는 다시 7개의 계(係)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은 70명 정도이며 각종 통계의 원활한 실시 및 통계의 가공·분석, 통계사상의 보급, 통계환경의 정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조사업무는 크게 국가위탁업무와 현 자체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가가 위탁하는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이나 조사원을 지도하며 아울러 조사표의 수집·심사 등을 수행한다. 현 자체의 기획에 의한 통계조사는 주로 현의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신속히 공표함과 아울러 통계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그림 1> 후쿠오카현(縣) 조사통계과 기구도

통계조사과의 업무를 각 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통계조정계는 예산·인사 등의 서무 및 현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종합조정을 수행한다. 노동통계계는 주로 총무청의 위탁에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대규모 조사는 국세조사(우리나라의 인구·주택센서스에 해당)이며, 그 외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상조사로서는 노동력조사, 가게조사, 단신세대 수지조사, 소매물가통계조사,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기조사 등이 있다. 기업통계계에서는 총무청의 위탁업무인 사업

소·기업통계조사, 서비스업 기본조사 외에 경제기획청의 위탁에 의한 법인기업동향조사 등의 기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상공통계계에서는 통산성의 위탁에 의한 공업통계조사, 상업동태조사, 특정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업통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통계계에서는 문부성의 위탁에 의한 학교기본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및 노동성의 위탁에 의한 매월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자료계에서는 농림수산성의 위탁에 의한 농업센서스 등을 실시하고, 통계자료열람에 대한 서비스나 통계연감 등의 편찬간행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계에서는 총무청의 위탁에 의해 5년마다 행하는 사회생활기본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현민경제계산이나 경기동향지수 등을 작성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독자적인 통계업무는 통계분석업무와 통계조사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통계분석업무로는 경기동향지수와 현의 경제동향 자료를 작성하는 경제동향분석업무, 물자 유통조사를 통하여 기본표(527행×444)와 종합표로 구성된 현(縣)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산업연관표의 작성, 현과 시정촌 주민의 소득·지출 등을 추계하고 주요 계열표 및 기본계산표 작성하는 경제지표작성, 그리고 현의 인구추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조사업무는 연령별 현재인구·사망·전출입자수·이동방향 등을 109개 시정촌 단위별로 조사하는 인구이동조사와 자산·부채·자본, 사업활동내역 등의 내용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법인기업통계조사 등을 수행한다.

## 나. 캐나다

통계청 본청에서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8개의 지방사무소에서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이외에 지역통계를 관리·서비스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 주정부에는 국(局)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있는데, British Columbia주 통계국의 경우 3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5개 부문(경제통계, 노동사회통계, 인구통계, 조사실시 및 분석, 자료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다. 미국

센서스국 본청에는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조직이 있으며 여

기에서 지역별로 가구소득 및 빈곤인구비율 통계와 지방재정 통계 등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통계국에서는 지역별 고용, 실업통계를, 경제분석국에서는 지역별 개인소득 추계자료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12개 지방사무소에서는 자료 수집, 자료서비스 및 지리정보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고, 각 주정부에는 과(課) 또는 국(局)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 라. 영국

영국 통계청에서는 본청 차원에서 인구주택센서스자료, 노동·연금부,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통계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나 런던, 뉴포트 등 4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이 모두 본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통계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

## 마. 호주

통계청 본청에 지역통계과(17명)와 지역통계서비스과(80명)가 설치되어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8개의 지방통계사무소에는 각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통계협력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각 주정부에 국(局) 수준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지역통계의 생산·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Queensland주 통계국의 경우 직원이 100여명 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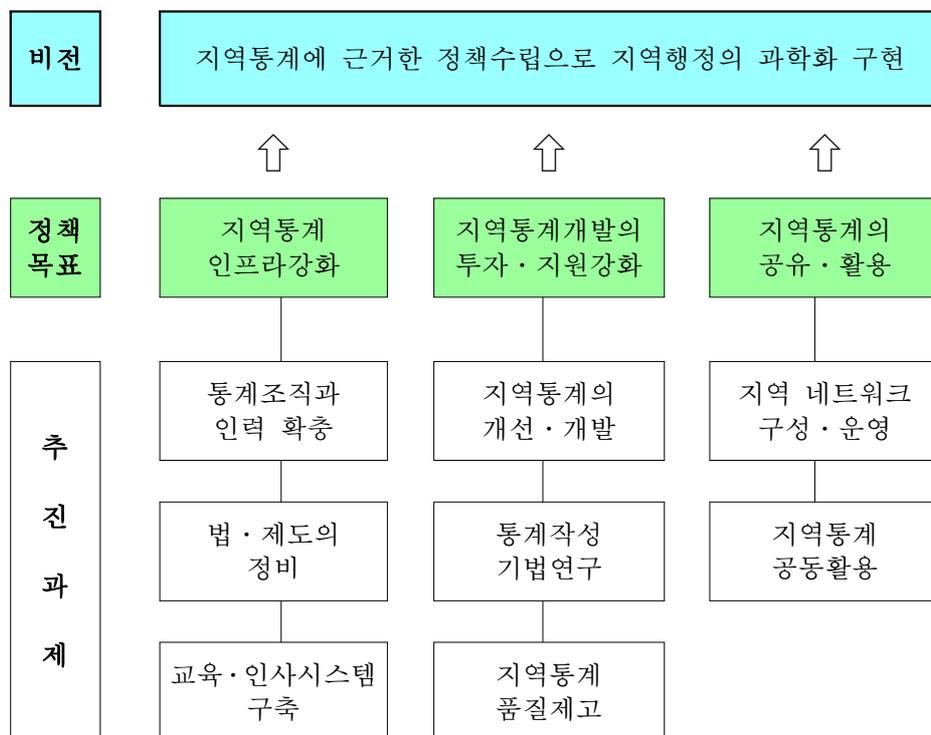
# Ⅲ. 지역통계 개선방안

## 1. 비전과 정책목표

일반적으로 지역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악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세부 추진과제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에 나타

난바와 같이 비전은 “지역통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지역행정의 과학화 구현”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지역통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3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지역통계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통계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통계작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통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통계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통계개발의 투자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통계를 새로이 발굴하여 개발하고 통계작성의 최신기법을 연구하며 아울러 개발된 지역통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역통계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것으로, 지역내 통계작성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이 서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통계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 지역통계발전의 비전과 정책목표

## 2. 세부 추진과제

위에서 언급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추진과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통계조직 및 인력확충, 법·제도의 정비, 교육·인사시스템구축, 지역통계의 개선·개발, 통계작성기법연구, 지역통계품질제고, 지역통계네트워크 구축, 지역통계의 공동활용 등 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의 통계조직 및 인력 확충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을 과(課)단위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2개 팀(통계분석팀, 통계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통계분석팀은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기획, 조사결과의 분석, 결과공표 등을 담당하며 팀장을 포함하여 4~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통계조사팀은 중앙부처의 위탁통계업무와 개발하는 지역통계의 현장조사를 담당하며 팀장을 포함하여 4~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통계조직을 계(係)단위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최소 3~4명 정도의 통계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려 통계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방통계직을 신설하여 일정 비율의 통계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방통계직을 신설하게 되면 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이 강하여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업무의 특성상 통계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산을 확보한 후 일정기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나. 지역통계 관련 법·제도 정비

통계법 개정안에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통계청)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지원, 역할분담 등을 위해 지역통계 정책을 전담할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지역통계과를 신설하여 지역통계의 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통계청(사무소)은 2005년 12월부터 지원

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현재의 현장조사기능 이외에 지역통계의 수요파악, 결과 분석 및 현장조사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내 통계작성기관에 민간 통계전문가 영입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지역통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역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통계청(사무소)의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 다. 통계교육 및 인사시스템 구축

통계교육원에서 전문통계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 담당직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통계청 담당실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통계업무 담당직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업무담당자가 세부적인 통계업무 매뉴얼을 작성·보완하여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직원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 직원간에 상호인사고료제도를 도입하고,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계담당자는 승진 등의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최소 3년) 이상 현 보직을 유지하도록 보직전보제한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그리고 통계업무 담당자에게 일정수준의 인센티브(성과상여금, 인사고과의 혜택 등)를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통계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한다.

#### 라. 지역통계의 개선 및 신규 개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통계 목록을 작성토록 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사회현상을 잘 나타내는 지역통계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전국 또는 시/도별로 작성되는 주요한 국가통계를 시/군/구별로 작성되도록 개선한다. 지역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지역통계의 개발을 위해 고용이나 노동, 질병 등과 관련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관련통계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한다.

## 마. 통계작성기법의 연구

현장조사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장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통계를 통계적 이론에 의한 간접 추계방식으로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직접 조사에 의해 투입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바. 지역통계의 품질을 제고

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통계품질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표본규모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사표의 항목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응답시간을 줄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조사원에게 면접기법과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오차를 최소화하며, 내용검토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지역통계의 품질을 진단·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는 자율적으로 품질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통계청(사무소) 지원센터에서 품질관리과의 협조하에 체계적인 통계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규 개발되는 지역통계는 필히 국가승인통계로 등록하여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사. 지역통계 네트워크의 구성·운영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계생산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주도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내 학계, 그리고 지역내 연구기관(시도발전연구원 등) 등으로 지역통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가령, 지역별로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지역통계발전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위원 등의 인력조직을 구성하여 매년 일정 주기별로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등을 토의·점검하도록 한다.

## 아. 지역통계의 공동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작성한 다양한 행정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통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통계 DB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는 지역통계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역통계 DB를 구축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한다.

## IV. 지역통계 개발사례

통계청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통계의 작성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필요한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인천시, 창원시 등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필요한 지역통계개발을 위해 통계청과 현재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추진중인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전주시 등 지자체의 지역통계 개발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

#### 가. 개요

통계청에서 추진중인 지원사업은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통계의 작성을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기획단계부터 결과공표단계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조사원의 현장조사기법이나 업무담당자의 통계이론 교육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통계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인력 등은 현실적으로 통계청이 지원하기가 곤란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지원내용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술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지식 제공

조사기획, 자료수집, 결과공표 등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 ㉠ 조사기획 단계

표본규모 설정, 표본설계, 조사방법, 조사표설계, 조사지침서 작성, 홍보 등 조사기획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제공하고, 신규 통계작성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지원한다.

#### ㉡ 자료수집 단계

조사원이 현장에서 정확한 통계작성을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기법 등을 지원한다. 통계작성 초기에는 지방통계청(사무소)을 통해 현장조사를 관리·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조사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통계교육원에 지자체를 위한 “통계조사과정” 개설하여 CASI, CAPI, 인터넷조사 등 최신 통계조사기법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지자체가 채용한 임시조사원을 위해 조사표 내용, 현장조사기법, 보안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 ㉢ 내용검토 단계

통계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착오, 내용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내용검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용검토 후 발견된 조사착오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지침서도 제공한다.

#### ㉣ 결과집계 및 공표 단계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과집계 프로그램 및 집계결과표 양식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지역통계 DB를 구축하거나 전산부문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2) 지원조직의 강화

지역통계개발을 위한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 산하 12개 지방통계청(사무소)에 지역통계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지역통계 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지원센터의 체제구축을 위해 기획·분석능력과 현장조사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통계개발 지원팀을 구성한다. 또한 임시조사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규직 현장조사인력을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으로 전환하고, 조사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원센터 상호간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지원센터에서는 통계청 본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현장조사나 조사원관리 등을 주로 지원하며, 특히 현장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3) 지자체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구축 지원

지역통계작성의 활성화와 자립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통계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내 통계담당 실사과에서 통계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계교육원에서 지역통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간의 교육 및 인사교류(파견근무 등)를 제도화하여 직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교육내용면에서도 조사기획 단계부터 결과공표 단계까지 통계조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실시하고 개별통계작성, 분석기법, 통계패키지(SAS 등)활용 등 전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 4) 통계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료의 입력 및 처리, 통계표작성, 통계DB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관련 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 다. 지원조직 및 운영

통계청 본청과 지방통계청(사무소), 통계교육원 등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선 본청 지역통계과에서는 지자체와의 대외창구역할을 수행하며 통계수요기관의 발굴, 지원센터의 지원, 표본설계 및 관리 등 지역통계의 개발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본청 통계담당 실사과에서는 조사표 설계 및 작성, 자료입력 및 집계프로그램 개발, 조사결과의 분석 등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원해 준다.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통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원들에게 현장조사기법을 교육하는 등 현장중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통계교육원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조사원들의 통계업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지역통계의 작성요구가 발생하면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통계청과 지자체의 담당자들간 업무협의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항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 라. 기대효과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자체는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음으로써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즉, 단순히 중앙기관의 위임통계업무를 수행하던 지자체가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역통계를 직접 생산하게 되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관행적·임기응변적 방식이 아닌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과학적 방식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던 통계업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통계의 인프라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지역통계개발 사례

2005년도에 추진중인 지역통계개발 시범지역은 전주시를 포함하여 강원도, 인천시, 청원군, 창원시 등 10여개이다. 이 중 전주시가 경제관련 통계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도에는 표본설계 및 조사원채용, 시험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주시에서 직접 지역통계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전주시의 통계개발에 대한 통계청의 지원내용과 전주시의 추진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가. 전주시

전주시에서 원하는 지역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청은 조사기획, 자료수집, 내용검사, 결과집계 및 분석, 공표 등 통계작성의 모든 기술적 내용을 적극 지원해 주고, 전주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서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청내 지원조직과 지원방안 등을 위한 “전주시 통계개발 지원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전주시에서도 통계작성의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한 “전주시 지역통계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발대상통계

전주시에서 개발코자 하는 통계는 전주시의 고용과 산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4종의 경제관련 통계로서 고용통계와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그리고 전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이 통계들은 통계청에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시/군/구 단위로는 작성되지 않아 전주시만의 조사결과를 공표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들 중 전주시의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과 같은 전수조사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유일하다.

### 2) 조사방법

추계통계인 전주시의 GRDP를 제외한 고용통계,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를 통해 작성되고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통계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예산확보 등 전주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조사횟수를 매월이 아닌 분기별로 1회씩, 연

간 4회 실시하기로 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해당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광공업동태조사와 도·소매업동태조사는 다음분기 첫 월(4월, 7월, 10월, 1월)에 전분기의 실적을 각각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조사표도 분기조사표로 변경하여 통계청에서 전주시에 제공하였으며, 분기별로 조사를 하여도 전주시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표본규모

전주시에서 작성할 3종의 통계에 대한 조사대상 표본은 크게 통계청표본과 전주시표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통계청표본이란 기존의 통계청에서 조사·관리하던 표본들로서 전주시에 해당되는 일부 표본들을 말하며, 전주시표본이란 전주시의 가구와 해당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새로이 추출한 표본을 말한다. 전주시의 표본설계시 기존의 통계청표본을 활용하면 새로 추출할 전주시표본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사결과의 분석에도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표본은 200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전주시의 총 가구와 해당 사업체를 각각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청에서 설계하였다. 고용통계의 경우 총 195,850가구에서 전주시표본으로 550가구를 추출하였고 통계청표본 400가구를 합쳐 최종 표본 규모를 950가구로 하였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에는 총 291개 사업체 중 71개를 전주시표본으로 추출한 후 통계청표본 40개를 합쳐 111개 사업체를 최종 표본 규모로 하였다. 도·소매업판매액지수의 경우에는 총 12,366개 사업체에서 790개를 전주시표본으로 추출하였고 통계청표본 80개를 더해서 전체 표본규모는 870개 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 통계들의 최종 표본규모는 <표 8>에 주어져 있다.

<표 8> 통계별 표본규모

(단위 : 가구, 사업체)

	고용통계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모집단	195,850	291	12,366
<b>표본</b>	<b>950</b>	<b>111</b>	<b>870</b>
통계청표본	400	40	80
전주시표본	550	71	790

(자료 : 통계청)

#### 4) 시험조사

조사수행시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5년 8월에 추출된 표본의 명부와 조사구요도를 재정비하였다. 시험조사는 통계조사별로 2회씩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고용통계는 9월말과 12월말에 2회 실시하고 산업생산지수와 도소매업판매액지수는 10월초와 2006년 1월에 각각 2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험조사를 위해 전주시가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약 6천4백만원이며, 이중 조사원 인건비와 답례품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조사별로 조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조사원은 모두 15명을 채용한 후,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투입하고 다음달 초에 광공업동태조사와 도·소매업동태조사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원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험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완료한 후 2006년 3월부터 매 분기별로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은 전주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하였다.

#### 5) 홍보 및 교육

전주시에서는 지역통계작성에 대한 내용을 지난 5월에 지역언론사에 “전주시 지역경제 통계지수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여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통계의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킨바 있다. 통계청에서도 다른 지자체와의 통계개발 업무협조시 전주시의 개발사례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지역포럼 등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계담당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8월 중 일주일간 전주시 담당직원을 통계청 담당실사과(서비스업동향과, 산업동향과, 고용복지통계과)에 파견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실무교육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통계청 실사과에서는 조사표설계, 자료수집 및 내용검토, 결과분석 및 집계프로그램 사용법 등 통계조사의 기획단계부터 결과공표단계에 이르는 내용들을 최대한 제공해 주었다.

#### 나. 기타 지역

2005년도에 통계개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중인 지역은 전주시를 제외하고 강원도, 인천시, 청원군, 용인시, 창원시, 부산시 등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은 2005년 11월 현재 업무협의를 위한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강원도 관광통계”의 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천시는 “인천시의 서비스업활동지수”, 청원군은 “청원군의 고용통계”, 용인시는 “용인시의 사회지표”, 창원시는 전주시와 같은 3종의 단기경제지표, 부산시는 “부산시의 고용통계”를 각각 생산할 계획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취약한 지자체 통계조직과 인력, 잦은 순환보직에 의한 통계전문인력의 절대부족, 지역통계의 양적인 부족, 지역통계의 정확성과 활용성 저조 등이 지역통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지역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통계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통계작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통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지역통계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제시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지역통계개발의 투자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통계를 새로이 발굴하여 개발하고 통계작성의 최신기법을 연구하며, 아울러 개발된 지역통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목표인 지역통계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내 통계작성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이 서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통계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한편, 지역통계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은 지역통계생산을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작성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강원도, 인천시 등 10여개의 지자체와 통계개발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전주시와 창원시에서는 고용통계와 산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관광통계를, 인천시는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용인시는 사회지표통계를, 그리고 청원군은 고용통계를 각각 작성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과제들을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수행한다면 현재보다 지역통계가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지역통계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지자체의 통계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김 동욱(1999). “지역통계행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7권, 175-201.
- [2] 김 정민(1995). “지역통계의 오차발생과 개선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135-154.
- [3] 김 주철(2005). “지역발전과 지역통계자료의 중요성”, 「제 8회 지역발전포럼」, 강원발전연구원.
- [4] 방 승이(2005). “지역통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Workshop 자료집」, 충북개발연구원.
- [5] 삼성경제연구소(1999).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6] 서울특별시(2005). “2004 서울서베이”, 「연구보고서」.
- [7] 윤 태범(1998).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통계분석연구」, 제3권, 105-130.
- [8] 이 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9] 이 진면(2005). “지역통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 8회 지역발전포럼」, 강원발전연구원.
- [10] 이 춘근(1998). “지역통계의 실태와 발전과제”, 「대구경북포럼」, 제 15권, 46-53.
- [11] 조 옥현, 노 근호(1998). “지역통계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119-132.
- [12] 조 옥현, 노 근호(1999). “소지역통계 발전방향 연구”, 「응용경제」, 제1권, 31-58.
- [13] 최 봉호(2005). “지역통계 개발 및 통계청의 역할”,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Workshop 자료집」, 충북개발연구원.
- [14] 통계청(2004). “가계조사의 소지역추정기법연구”, 「연구용역결과보고서」.

[15] 통계청(2004). “통계행정편람”.

[16] 통계청(2004). “2004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보고서”.

[17] 통계청(2005). “지역통계 발전계획”,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연구보고서」.

[18] 인터넷 홈페이지

- <http://eativ.state.wy.us>
- <http://portal.stat.go.jp>
- <http://neighbourhood.statistics.gov.uk>
- <http://www.bcstats.gov.bc.ca>
- <http://www.cbdi.re.kr>
- <http://www.cheshire.gov.uk/LocalStatistics>
- <http://www.ddi.re.kr>
- <http://www.ebang.go.kr>
- <http://www.kdi.re.kr>
- <http://www.kdri.re.kr>
- <http://www.krila.re.kr>
- <http://www.nso.go.kr>
- <http://www.oesr.qld.gov.au>